

#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한 조형적 의류디자인 연구 - 릭 오웬스, 다미르 도마, 하يدر 아커만의 작품을 중심으로 -

임 소 연\* · 이 주 현\*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박사과정\* · 연세대학교 의류환경학과 교수\*

## A Study on Formative Clothing Design with Exaggerated Measurements and Origami Principles - Focusing on Rick Owens, Damir Doma & Haider Ackermann -

So-Yon Lim\* · Joo-Hyeon Lee\*

Ph. D. Candidat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Prof.,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Yonsei University\*

(2011. 1. 27. 접수; 2011. 2. 28. 수정; 2011. 3. 4. 채택)

### Abstract

Creative application of exaggerated measurements and origami principles can make clothing design unique and formative clothing design possible. There have been many techniques applied to formative clothing design, but, in particular, origami principles, in company with exaggerated measurements, play a significant role in enlightening clothing uniqueness and formativeness in contemporary fashion design.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make a new suggestion for the production of high value-added fashion by reviewing and synthesizing exaggerated measurements and origami principles. Diverse relevant designs were retrieved through a comprehensive literature review on topic-related theses, books, and fashion media from 2000 and significant cases were retrieved from Rick Owens, Damir Doma & Haider Ackermann out of 2008 & 2009 F/W collections.

From a comprehensive review, the following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exaggerated measurements and origami principles applied to clothing design were identified: (1) expandability, (2) fluidity, (3) deconstruction, and (4) irregularity. In addition, the following value of exaggerated measurements and origami principles applied to clothing design were identified: (1) alterability, (2) form potentiality, and (3) contradistinctive formativeness.

**Key Words:** Exaggerated measurements(분량 과장), Origami principles(오리가미 원리), Formative clothing design(조형적 의류 디자인)

## I. 서론

현대 패션은 새로운 자아를 창조하는 감각산업으로서 전 세계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다양한 개성의 컬렉션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듯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난립 속에서 소비자들에게 자신들만의 디자인을 어필하기 위해, 디자이너에게는 그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정립이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아이덴티티 정립은 디자이너의 컬렉션 진행에서 보여주는 컬러, 소

Corresponding author ; So-Yon Lim

Tel. +82-10-6332-4866, Fax. +82-31-931-9377

E-mail : pika11@daum.net

재, 디테일, 실루엣 등 복합적이고도 다양한 총체적 요소들이 결합되어 나오는 스타일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스타일 구축에 있어 패션의 조형성은 내외적 형태를 동시에 구현가능하다는 의미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패션의 조형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과거 수많은 디자이너들이 패션 컬렉션에서 두드러지게 보여 왔던 주름에 큰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특히 김지영(2005)의 연구에서는 2000년대 이후 여성 패션을 중심으로 주름에 의한 패션 디자인을 분석함에 있어 주름의 조형요소를 주름의 선, 공간 그리고 텍스처로 나누고 주름의 유형을 봉제주름, 가공주름 그리고 구성주름으로 나누는 등 주름의 기본적 측면에 충실하여 면밀히 살펴보았으며, 뒤이어 양희영과 양숙희(2007)는 라이프니츠와 들뢰즈의 주름 이론을 중심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종류를 크링클 방식에 의한 주름, 오리가미 방식에 의한 주름, 접기 방식에 의한 프렉탈적 주름 그리고 드레이퍼리 방식에 의한 주름으로 나누어 각각 그 구성방식, 구조, 의복공간 그리고 특성을 분석, 이를 바탕으로 1990년대 이후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을 확장성, 유동성, 탈구조성 그리고 불규칙성의 네 가지로 분류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더하여 접기 방식 주름의 근원적 원리가 되는 오리가미에 대한 다양한 연구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최정화와 최유진(2009)의 연구에서는 기능성이 반영된 오리가미 패션의 표현특성으로 효율적 공간대응성, 복합적 기능통합성, 불확정적 형태잠재성 그리고 인간 공학적 최적성의 네 가지로 분석해 보였다. 이렇듯 현재까지도 디자이너 고유의 독특한 아이덴티티 정립의 중요한 열쇠가 되는 패션의 조형성을 보다 새롭고도 낯들과 다른 모습으로 구현하기 위해, 패션의 조형성에 대한 좀 더 새로운 시각과 진화된 접근을 위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보다 새롭게 진일보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절실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패션의 조형성을 다룬 선행 연구들이 일반적으로 주름에 그 초점을 두었던 기존의 경향에서 보다 근본으로 돌아가, 본 연구의 목적은 의류디자인에서 근원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분량의 과장 그리고 오리가미 원리에 대한 근본적 연구 분석을 통해 의류디자인 안에서의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의 적용을 유형화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보다 개성화되고 독보적인 조형성 구축이 가능한 의류디자인 창출로의 적극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 분석을 통해 의류디자인에 있어서의 조형성 구축을 위한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의 활용이 보여주는 의류디자인 안에서의 그 유용성을 밝히는 것에 본 연구의 의의를 둔다.

## II. 연구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한 조형적 의류디자인에 대한 연구로 주름의 조형적 특성 그리고 기능성 반영 오리가미 패션을 다룬 기존 연구들을 보다 체계적이고도 심도 있게 보완한 것으로, 패션 조형성에 활용되어진 분량의 과장 그리고 오리가미 원리의 유용성에 관해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실증적 사례연구로 본 연구자 구성의 전문가 조사와 내용분석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는 우선 의류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의 유형과 그 특성을 규명하였고, 이에 따라 실증적 사례연구를 병행하였으며, 실증적 사례연구의 자료들은 패션, 오리가미 관련 서적 및 패션 조형성에 관한 선행연구 논문 등의 문헌자료들을 바탕으로 컬렉션 정보 전문 인터넷 사이트인 [www.style.com](http://www.style.com)과 국내에 수입되는 전문 컬렉션 패션정보지, 컬렉션 패션 잡지 등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의 범위는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한 경향이 두드러지는 2008과 2009 F/W 여성복 및 남성복 전체 컬렉션으로 시간적 제한하였고, 2009년 10월 1일부터 11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www.style.com](http://www.style.com)을 통한 전체 컬렉션 자료에 대한 기본 검색을 우선 실시하였다. 즉, 해당 시즌의 전체 컬렉션 자료들을 검색해야하는 작품 자료 기본 검색을 수행함에 있어서, 대부분의 패션 컬렉션 관련 인쇄매체들이 컬렉션의 전체 자료 사진들이 아닌 일부만을 발췌해서 담고 있는 사실을 이유로 기

본 전체 컬렉션 검색의 최적화된 연구 도구로서 [www.style.com](http://www.style.com)을 이용하였고, 이를 통해 선정된 작품 자료 사진의 본 연구에서의 자료제시를 위해서는 최적화된 해상도를 위하여 국내에 수입되는 전문 컬렉션 패션정보지, 컬렉션 패션잡지인 *gap PRESS*와 *Fashion News* 등과 같은 인쇄자료들을 통한 상세 사진 자료들을 재검색 및 재추출하여 자료 제시에 이용하였다. 유의한 작품의 선정 및 추출 과정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의 유형화 및 특성을 기준으로 2008년과 2009년의 디자이너 전체 컬렉션 작품 수 대비 본 연구의 분석 기준에 각기 또는 공통 해당하는 유의한 해당 작품 수의 비율을 계산하여 전체 디자이너들의 평균 비율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작품 자료의 수집과 분석과정에서는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가 2인으로부터 작품 선정 각 단계에 대한 질문과 조언을 받아 답을 찾고 수정하는 *peer debriefing* 방식을 취함으로써 작품 선정에서의 타당성 검증과 작품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사례 분석 결과, 분량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한 작품 경향이 전체 컬렉션 구성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유의한 디자이너들을 비교 추출하였다.

추출된 세 명의 디자이너 릭 오웬스(Rick Owens), 다미르 도마(Damir Doma), 하이더 아커만(Haider Ackermann)로서, 릭 오웬스(Rick Owens)는 2008년 F/W에서 43/45: 95.6%, 2009년 F/W에서 36/36: 100%로 평균 97.8%의 해당 구성 비율로 분석되었고, 다미르 도마는 2008년 F/W 프레젠테이션 자료에서 7/8: 87.5%, 2009년 F/W에서 25/25: 100%로 평균 93.8%의 해당 구성 비율로 분석되었으며, 하이더 아커만은 2008년 F/W에서 27/28: 96.4%, 2009년 F/W에서 27/30: 90%로 평균 93.2%의 해당 구성 비율로 분석되었다. 또한 이들의 패션 디자인은 동시에 상기 트렌드 리딩 패션 매체들에게서 특히 분량의 과장 그리고 오리가미 원리를 통해 그들만의 독보적인 패션 조형성을 구축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각각의 디자인에서 나타나는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의 특성을 분석, 이들 세 명의 디자이너들의 표현상에서의 유사점과 차이점 또한 살펴보기로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실증적 분석

예시자료로 이용한 상기 디자이너들의 작품사진은 패션 구성방식에 있어서 본 연구의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한 경향이 크게 두드러진 2008과 2009 F/W 컬렉션 내의 대표적 작품들 중 선정하여 이루어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각 디자이너들의 특징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내용과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분량 과장의 정의와 패션 조형성에 활용되어진 분량 과장은 무엇인가
2. 오리가미 원리의 정의와 패션 조형성에 활용되어진 오리가미 원리는 무엇인가
3. 릭 오웬스, 다미르 도마, 하이더 아커만의 조형적 패션에서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는 어떻게 활용되어지는가
4. 상기의 고찰을 바탕으로 의류디자인에서 활용되어지는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의 조형적 특성과 유용성은 무엇인가

### III. 조형적 패션에 활용되어진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

#### 1. 분량 과장

분량 과장이란 분량의 확대 및 축소 과장을 의미한다. 의류디자인 안에서의 분량 과장은 특히 디자인 안에서의 분량 과장의 위치, 가로, 세로 방향의 분량 과장의 방향, 그리고 확대, 축소의 과장 분량에 따라서 그 유형이 나뉘며 각각의 특성이 다르게 분석된다. 즉, ① 의류디자인 안 몸판, 소매판, 다리판 등의 기본 보디스(bodice) 판에서의 가로 방향의 분량 확대 및 축소 과장은 의류디자인의 루스(loose) 실루엣 및 핏티드(fitted) 실루엣 구현을 결정하고, ② 세로 방향의 분량 확대 및 축소 과장은 디자인 실루엣의 길이 구현에 있어서의 짧음과 길고 늘어짐의 드레이퍼리 구현을 결정한다. ③ 확대와 축소의 동시 과장은 의복에서 구조적 대비 조형성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축소 과장의 경우 기능성 신축성 소재를 통해 구현 가능하다. 특히, ④ 몸판 여밈에서의 가로, 세로 방향의 분량 확대 과장

은 지퍼, 버튼 등 다양한 여밈 디테일 선택과 그 위치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가변적 단힘 여밈의 조형성 구축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열림 여밈 상태에서도 유연한 가변적 드레이프의 극적 구현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비적 조형미 구축이 가능한데 이렇듯, 의류디자인 안 극적 큰 분량의 가로, 세로 확대 과장은 의복 착장에 있어서의 드레이퍼리 오리가미로의 자연스러운 연계성을 가지게 된다.

## 2. 오리가미 원리

모던 오리가미는 종이접기만의 원리를 고수하는 전통 오리가미와 달리 접기, 펴기, 늘리기, 구부리기, 자르기, 붙이기, 연결하기 등 다양한 원리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하였고 조형성 구현에 있어 큰 효과를 가진다(Cantz, H. et al., 2005; 최정화, 최유진, 2009). 의복의 형태 조형성을 표현하는 대표 기체인 주름 역시 오리가미 원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선행연구 속 ① 봉제주름, 가공주름, 구성주름의 분류(김지영, 2005) 또는 ② 크링클 주름, 오리가미 주름, 접기 주름, 드레이퍼리 주름의 분류(양희영, 양숙희, 2007) 모두 오리가미 원리로 이해 및 재해석 가능하다. 이러한 오리가미 원리에 기초한 모든 다양한 모습의 주름들이 의류디자인 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구현되며, 이러한 오리가미 주름 형성에는 반드시 반복적인 접기와 펴기를 통한 분량 과장의 동반, 또는 드레이퍼리 주름을 위한 극적인 큰 분량의 분량 과장이 동반되어짐을 알 수가 있다. 이에 더하여 ③ 늘리기, 구부리기, 자르기, 붙이기, 연결하기 등 다양한 원리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모습으로 진화 구현된 평면에서의 울룩 볼록한 모습의 입체 구현을 보여주는 모듈라 및 멀티모듈라 오리가미(Cantz, H. et al., 2005)는 평면상의 입체적 조형성 구현을 위해 의류디자인 안에 적용되어지는 새로운 오리가미 원리로 이해 가능하며, 이 역시 부분 부분에서의 작은 분량 과장들이 반복되어짐을 통해 다시 한 번 오리가미 원리와 분량 과장의 자연스러운 연계성을 볼 수가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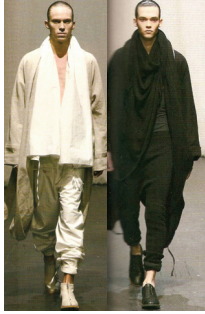
## 3. 릭 오웬스, 다미르 도마, 하이더 아커만에 활용되어진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

본 연구는 실증적 사례연구 속 자료들에 대한 내용분석방법을 통해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한 작품 경향이 전체 컬렉션 구성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유의한 디자이너들을 비교 추출하였고, 추출된 연구 분석 대상의 디자이너로는 2008F/W와 2009F/W 컬렉션 작품 속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분석되는 해당 작품의 구성 비율이 평균 97.8%의 릭 오웬스(Rick Owens), 93.8%의 다미르 도마(Damir Doma), 93.2%의 하이더 아커만(Haider Ackermann)으로 나타났다.

의류 디자인에 있어서의 분량 과장의 원리를 이용한 유형 ①은 몸판, 소매판, 다리판 등의 기본 보디스(bodice) 판에서의 가로 방향의 분량 확대 및 축소 과장을 통한 루스(loose), 또는 핏티드(fitted) 실루엣의 구축으로, 다미르 도마와 하이더 아커만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그림 1>의 다미르 도마 2009F/W 작품과 같이 외투의 기본 몸판과 소매판에서의 전체적인 분량의 과장을 통한 루스(loose) 실루엣의 극대화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착장 시 직선 여밈의 열림에서는 전체 루스 실루엣과 더불어 드레이퍼리 표현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하이더 아커만의 2009F/W 작품 <그림 2>는 외투와 상의의 몸판과 소매판에서의 가로 분량 확대와 소매 길이 방향의 확대를 통해 루스 실루엣을 구축하고, 더불어 하의에서는 핏티드된 실루엣 안에 다리 길이 방향의 분량 확대를 통한 드레이퍼리 주름을 동시에 구축하여 루스한 상의와 핏티드된 드레이퍼리 주름의 하의를 통한 극적 대비를 구축해 보였다.

분량 과장의 원리를 이용한 유형 ②는 세로 방향의 분량 확대 및 축소 과장을 통한 길이에서의 오리가미 원리 속 드레이퍼리 주름 구현으로, 특히 하이더 아커만의 작품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2008F/W의 <그림 3>의 부츠 연결 바지통과 2009F/W의 <그림 4>의 상의 소매통에서 보여지 듯, 핏티드(fitted)된 실루엣 안에 길이 방향에서의 분량 확대를 통해 드레이퍼리 주름



<그림 1> 09-10 F/W Damir Doma (출처: gap PRESS. Vol. 17, p.50, 51.)



<그림 2> 08-09 F/W Haider Ackermann (출처: Fashion News. Vol. 136, p.119. 09-10 F/W Haider Ackermann, gap PRESS. Vol. 88, p.64.)



<그림 3> 08-09 F/W Haider Ackermann (출처: Fashion News. Vol. 136, p.119.)



<그림 4> 09-10 F/W Haider Ackermann (출처: gap PRESS. Vol. 88, p.64.)

을 섬세하게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량 과장의 원리를 이용한 유형 ③은 확대 및 축소의 동시 과장을 통한 구조적 대비 조형성 구축으로, 이는 릭 오웬스와 하이더 아커만의 작품에서 나타났으며, 특히 릭 오웬스의 작품 경우에는 2008, 2009F/W의 <그림 5>에서와 같이 고신축성 소재를 이용한 소매통의 극적 축소와 동반된 더욱 극대화된 대비 조형성이 디자이너 고유 아이덴티티로서 확립되어 표현되었으며, 하이더 아커만의 경우, 앞선 2008F/W의 <그림 3>에서와 같이 핏티드(fitted)된 상의의 가로 방향 분량 축소와 동시에 가로 방향의 분량 확대된 풍성한 하의를 통한 구조적 대비가 이루어짐이 보였다.

분량 과장의 원리를 이용한 유형 ④는 여밈에

서의 분량 확대 과장을 통한 단힘 여밈에서의 조형성 구축과 열림 여밈에서의 유연한 드레이퍼리 주름 구축을 통한 가변성을 가진 대비적 조형미 구축으로, 이는 릭 오웬스, 다미르 도마, 그리고 하이더 아커만의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으며, 작품 속 여밈에 있어서의 분량 과장을 보면 그 구현 방향이 직선 또는 사선의 방향으로 각기 디자이너 간 개성 표출된 다른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특히, 앞선 <그림 5>에서의 2008, 2009F/W 릭 오웬스의 작품 경우, 2008F/W의 직선 여밈에서 2009F/W의 사선 여밈으로 그 분량 과장을 더욱 극대화하고 있음이 나타났으며, 단힘 여밈과 열림 여밈에서의 서로 다른 조형미가 표현되며, 이 동일한 표현이 2008F/W의 사진 속 부츠에서도 표현되고 있었다. 다미르



<그림 5> 08-09 F/W Rick owens (출처: Fashion News. Vol. 136, p.120. 09-10 F/W Rick owens, gap PRESS. Vol. 88, p.86.)



<그림 6> 08-09 F/W Damir Doma, (출처: gap PRESS. Vol. 13, p.68.)



<그림 7> 09-10 F/W Haider Ackermann (출처: gap PRESS. Vol. 88, p.65.)



<그림 8> 09-10 F/W Rick owens (출처: gap PRESS. Vol. 88, p.86, 88.)

도마의 경우, <그림 6>의 2008F/W 작품과 같이 사선 방향의 분량 확대 과장된 여밈은 역시 단힘 여밈에서는 구조적 조형미를, 그리고 열림 여밈에서는 유연하게 흘러내리는 드레이퍼리 주름 오리가미의 표현을 보여주었다. 또한, <그림 7>의 2009F/W 하이더 아커만의 경우, 동일한 원리를 의류디자인에 적용함에 있어서 특히, 큰 분량의 드레이프만을 위한 단순한 확대가 아니라 단힘 여밈에서는 확대 분량을 후드로 변형하여 구축함을 보여주면서 다른 디자이너들과는 차별화된 또 다른 조형미 구축을 보여주었다.

또한, 오리가미의 원리를 이용한 유형은 ① 봉제주름, 가공주름, 구성주름 구현, ② 크링클 주름, 오리가미 주름, 접기 주름, 드레이퍼리 주름 구현, 그리고 ③ 평면에서의 울룩불룩한 입체 구현의 모듈라 및 멀티모듈라 오리가미 구현으로 구분되며, 이들 모든 오리가미 원리의 의류디자인 안에서의 구현 유형들은 분량 과장을 동반함으로써 구현 가능한 원리들로, 이 중, 앞서 분량 과장의 원리를 이용한 유형 ②와 더불어 표현된 드레이퍼리 주름 구현이 하이더 아커만의 작품 <그림 2>와 <그림 3>의 하의에서의 드레이퍼리 주름 그리고 <그림 4>의 상의 소매와 하의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상의 소매의 드레이퍼리 주름과 하의 팬츠에서의 오리가미 턱 주름의 구현을 보여주었다.

오리가미 원리의 이용 유형 ③의 모듈라 및 멀티모듈라 입체 표면감 구현은 릭 오웬스의 2009F/W의 작품 <그림 8>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특히 상의 몸판 표면에서의 울룩불룩한 입체적 표현감을 보여주는 모듈라 및 멀티모듈라 오리가미의 표현 구현을 볼 수 있겠다.

이렇듯, 세 디자이너가 의류디자인 안에서 이용한 분량 과장의 원리와 오리가미의 원리 표현에서의 두드러지는 공통점은 여밈에서의 분량 확대 과장을 통한 단힘 여밈에서의 조형성 구축과 열림 여밈에서의 유연한 드레이퍼리 구축을 통한 가변성을 가진 대비적 조형미 구축으로 드러났다. 또한, 각 디자이너들이 보여준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적용한 표현에서의 차이점을 분석해 보면, 릭 오웬스는 주로 확대와 축소의 동시 과장을 통한 구조적 대비미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있었으며, 특히 이러한 대비미는

그만의 고유한 아이덴티티 요소로서 독보적 기술화된, 고신축성 소재 이용을 통한 소매통의 극적 축소를 통해 더욱 더 두드러졌으며, 다미르 도마의 경우, 단순화된 드레이퍼리 구현에 중점을 두는 표현으로 기본적 보디스(bodice)판에서의 가로 방향의 분량 확대를 이용한 루스(loose)한 실루엣 구축과 이렇게 구현된 큰 분량의 실루엣을 착장을 통해 자연스럽게 구현하게 되는 드레이퍼리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었다. 또한, 하이더 아커만의 경우, 릭 오웬스나 다미르 도마와 달리 핏티드(fitted)된 소매나 다리의 길이 방향에 있어서의 확대 과장을 통한 드레이퍼리 주름을 이용해 루스(loose)한 실루엣과 핏티드(fitted)된 실루엣의 동시 구축에 있어서 좀더 극적이면서 세심한 표현의 대비미를 보여주는 것처럼 세 디자이너의 표현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4.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의 조형적 특성과 유용성

본 연구를 통해서 분량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의류디자인에 적용 시, 적용 원리에 의한 복합적 결과로서 의류디자인 안에서 조형적 특성과 유용성이 구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복 안에 분량의 확대와 축소를 통한 분량 과장과 더불어 접기 주름 또는 드레이퍼리 주름(양희영, 양숙희, 2007)과 같은 오리가미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의복은 외적 조형상 과장된 분량을 통한 확장성을 가지고, 여밈에서의 열고 단힘을 통한 유동성, 그리고 이를 통한 기존의 구조에서 벗어나는 탈구조성과 불규칙성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가 구현하는 조형적 특성에서 나타나는 유용성으로는, 특히 분량의 과장을 통해 외적 형태가 의복 착장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잠재적으로 변화 가능하다는 것을 가장 큰 유용성으로 들 수 있으므로 가변성, 형태잠재성 그리고 이러한 의복의 자유 변형을 통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대비조형성을 들 수 있겠다.

이러한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의 의복에서 구현되는 그 조형적 특성과 유용성을 정리

요약해 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가 의복에서 가지는 조형적 특성과 유용성**

|        |                      |
|--------|----------------------|
|        |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       |
| 조형적 특성 | 확장성, 유동성, 탈구조성, 불규칙성 |
| 유용성    | 가변성, 형태잠재성, 대비조형성    |

#### IV. 결과 및 결론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량 과장이란 의류디자인 안 분량의 가로, 세로 방향에서의 확대 및 축소 과장을 통해 구현된다. 확대와 축소의 동시 과장은 의복의 구조적 대비 조형성 구축을 가능하게 하며, 축소 과장의 경우 기능성 신축성 소재를 통해 구현 가능하다.

둘째, 몸판에서의 분량 확대 및 축소 과장은 루스 실루엣 및 피트 실루엣 구현을 결정한다. 특히, 몸판 여밈에서의 분량 확대 과장은 지퍼, 버튼 등 다양한 여밈 디테일 선택과 위치 조절을 통해서 다양한 가변적 단힘 여밈의 조형성 구축이 가능하고, 열림 여밈 상태에서도 또한 유연한 가변적 드레이퍼리 플리츠 오리가미 원리의 극적 구현을 통해 대비적 조형미 구축이 가능하며 이렇게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는 자연스럽게 의복 안에서 연결 구현되어진다.

셋째, 의복의 다양한 분류의 주름들은 모두 모던 오리가미 원리로 이해하여 재해석가능하며 모든 오리가미는 분량의 과장을 필요로 한다. 그 중, 의복 형태 조형성 극대화를 위해서 구성 주름인 드레이퍼리 플리츠 오리가미의 활용 효과가 크며, 울룩불룩한 입체 표면 구현을 통한 표면 장식적 형태 조형성 극대화를 위해서는 모듈라 및 멀티모듈라 오리가미의 활용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

넷째,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한 의류디자인은 확장성, 유동성, 탈구조성, 불규칙성 등의 조형적 특성과 더불어 가변성, 형태잠재성, 대비조형성 등의 유용성을 가지며, 그 원리를 이용하는 각각의 디자이너에 따라 다양한

표현 차이를 가지게 된다.

이상과 같이 분량 과장과 오리가미 원리를 이용한 조형적 의류디자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현대의 다양한 가치체계를 적극 수용하고, 보다 다양해지는 현대인의 미적 욕구를 구현하는 의류디자인의 적극적 표현방법으로서 잠재적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며, 더불어 이의 독특한 표현특성들을 이용하여 기존 의류디자인을 탈피하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모색함에 있어 유용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 문헌

- 김소영, 강경애. (2007). 현대패션에 나타난 문화적 퓨전 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2), 167-178.
- 김영란.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의복구성의 부분 변형.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9(1), 103-122.
- 김지영. (2005). 주름에 의한 패션 디자인-2000년대 이후 여성패션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3(5), 249-265.
- 박윤아. (2008). 트렌드 변화에 따른 패션이미지 분석 -2000년~2006년 국내 여성복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 10(1), 145-159.
- 박일록, 조진애. (1998). *의복문화사*. 전북: 원광대학교출판국.
- 신혜순. (2007). *현대패션용어사전*. 파주: 교문사.
- 양희영, 양숙희. (2007). 현대 패션에 나타난 주름의 조형적 특성에 관한 연구-라이트니츠와 들뢰즈를 중심으로-. *복식*, 57(1), 130-146.
- 유현정. (2010). 2000년 이후 패션의 주요 트렌드와 트렌드 이미지.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2(3), 73-82.
- 이은영. (1999). 복식에 표현된 드레이퍼리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7(1), 52-67.
- 이호정. (2005). *패션디자인*. 서울: 교학연구사.
- 임은혁. (2009). 현대패션에 나타난 오리가미의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33(8), 1253-1261.
- 정삼호. (2008). *현대패션모드*. 파주: 교문사.
- 최정화, 최유진. (2009). 기능성이 반영된 오리가미 패션의 표현특성. *한국의류산업학회지* 11(4), 515-526.

- Cantz, H., Hatori, K., & Jackson, P. (2005). *Masters of Origami*. Ostfildern-Ruit: Hatje Cantz Publishers.
- Fashion News. Vol.136. (2008. 8). p. 119, 120.
- gap PRESS. Vol.88. (2009. 4). p. 64, 65, 86, 88.
- gap PRESS MEN. Vol.13. (2008. 3). p. 68.
- gap PRESS MEN. Vol.17. (2009. 3). p. 50, 51.